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이우학교에 이르기까지

친구들을 만나 보니 그 사이에 부쩍 커 있었다. 그들이 전략이니, 전술이니 온갖 어려운 용어들을 써 가면서 정국을 설명할 때는 이 친구들이 참 똑똑하다는 느낌이 안 들 수가 없었다. 학회 후배들에게 방위 갔다왔다고 하면서, 선배로서 얼굴도 내밀고 하다가 복학생 명단을 본 그들에게 감옥 갔다온 사실을 실토하기도 했다. 서서히 정치범 전과를 하나 단 복학생으로서 또 한번 1980년의 정치적 격동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가 유신체제를 어떤 내용으로 비판하였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그 유인물들 내용도 다 못 읽어 봤다. 단지 억압체제에 항거하자는 뜻에 동참한 것이다. 그 정도의 유인물 살포는 1980년대에는 혼방감이었음을 생각하면, 박정희의 유신체제는 정치적 관용을 생각할 수 없는 경직된 체제이고 그 경직성은 바로 정권이 말기에 들어섰음을 나타냈다고 본다.

대학생 시절의 옥살이가 불의의 권력에게는 어떻게든 저항해야 된다는,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는 열정을 일으키는 원초적 경험이 되어, 나는 오늘도 오십의 나이에 대한학교라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일구는지도 모른다. 나 개인의 영달을 추구했다면,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한 50평 되는 아파트에, 대형 승용차, 명망 있는 지위 같은 것일까? 아니다. 그것들은 너무 작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희망을 품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삶의 가치지향을 심어 준 학회 선배와 동기들, 동시대를 살아온 의로운 지식인들, 그 시대의 고통을 함께 견뎌온 수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보다는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추구하는 기회를 제공한 고 박정희 씨에게 감사드린다.



정 광 필\_ 서울대 철학과 77학번.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사무총장, 이우교육공동체 공동대표, 전국대안학교협의회 총무, 이우중고등학교 교장(현)

내게도 가슴 벅찬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다. 토요일이면 봉사 서클에서 여고생들과 어울리는 재미에 빠지기도 했고, 독서토론회를 만들어 철학시를 소크라테스부터 시대 순으로 훑어보려 했으나 중세의 아퀴나스에서 막혔던 기억도 난다.

그러나 그 시절은 암울한 유신 시대였기에 세상에 대한 눈을 뜨지 않을 수 없었다. 엉뚱하게도 1973년 재야의 모든 투쟁이 숨죽여 있던 시절에 경기고등학교 1학년생인 노회찬과 함께 반정부유인물을 학내에 살포하여 당시 서울의 고등학교가 조기방학을 하게 만든 일도 있었다. 2학년 때 민청학련 때는 교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시국토론회를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평생의 지기들을 만났다. 노동운동을 함께 했었던 노회찬 의원, 이우학원의 장석 이사장, 동아일보의 김창희 부장, 울산의 최용석 변호사 등등.

대학에 입학하기 전, 난 학부에서는 인문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는 사회과학을 공부하여 세상을 이해해 보겠다는 아무진 계획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1977년 입학식도 하기 전에 몇몇 서클에 스카웃되어 학생운동을 시작했다. 결국 대학 1년을 못 채우고 11월에 제적되었고, 1978년에는 반정부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다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덕분에

영등포 구치소에서 그동안 미루었던 공부에 용맹정진할 수 있었다.

1979년 석방에 이어 바로 징집되었다. 그런데 하필 내가 입대하던 날 밤, 젊은이들이 온 몸으로 반대하던 유신독재가 막을 내렸다. 그 당시 분위기를 볼 때 1주일만 늦었어도 ‘뺑깡’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입대 후 최전방에서 33개월 동안 근무했다. 내가 근무한 부대는 155mm 포병부대였다. 학 빠리, 그것도 ‘서울대 출신’이라고 해서 상부에서는 나를 행정병으로 차출하고자 했다. 그것도 몇 번씩. 그 때마다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포병 사수로 되돌아 왔다. 제대할 때 병적기록부의 상별란에 칸이 모자라 쪽지를 덧붙일 정도였으니까 분명히 ‘훌륭한’ 군인이었던 것 같다.

나는 제대하고 나면 공장에 들어가 노동운동을 할 작정이었다. 더 정확히는 조직사업에 유리한 선반공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대포 조작에 공을 많이 들였다. 그리고 군대 시절에 삼천포 출신의 농사꾼을 만났는데, 그에게서 삼질, 곡괭이질, 낫질까지 손발로 하는 노동의 대부분을 배웠다.

1982년 제대 후 철학과를 복학했다가 그 해 겨울 마침내 나의 오랜 염원이었던 선반공이 되었다. 청계천 마찌꼬바에서 처음 선반을 배웠다. 선반은 도면을 보고 작업을 하는 일이라 쉽지가 않았다. 처음 몇달 동안은 별 수모를 다 겪었다. “머리를 써야지, 너는 중학교도 안 나왔냐?”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래도 6개월 배웠는데 3년 경력을 인정받아 제강회사 공무과에 들어간 것은 구박받으면서 훌륭한 사부에게 배운 탓이라. 그렇게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하였다. 1989년 11월에 인민노련 조직사건으로 아내가 구속되었다. 그리고 나는 집중 수배를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지역의 운동 조직들을 전국적으로 통합하는 임무를 맡았다.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두루 다녔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전국의 곳곳을 방랑하며 다닌 셈이다.

당시는 수배 상태라 가장 이동하기 좋은 방법이 낚시꾼 차림이었다. 원주의 한 저수지에 텐트를 치고 매일 팀씩을 만나는 식이었다. 그런데 중이 젖밤에 눈이 어둡다고 그 때 배운 낚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천지 만물의 상생(相生)을 이야기 하면서 물고기를 취미로 잡느냐는 처의 공박에 궁색한 변명밖에 못하면서 지금도 머리가 복잡할 때는 물가로 나선다.

1992년 노동운동을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정치 세력화하는 과정에 뛰어 들었다. 한국노동당준비위의 조직국장을 거쳐 민주당에서 조직국장을 맡았다. 총선이 끝난 후 국가보안법으로 다시 두 번째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후 민주당 후속 모임인 진보정당추진위원회에서 오랜 동지인 노회찬, 황광우, 주대환 선배 등과 활동을 했다. 1994년부터 2년 간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았다. 당시는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에 나선 시기였다. 그러나 정치인이 되기에는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고, 성향도 맞지 않았다. 그래서 보다 길게 할 수 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 했다.

그러다가 새롭게 대두한 공동체 운동이나 생태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교육에 눈뜨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 저질러 본 일이 ‘철학교실’이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그 동안의 사회운동 과정에서 사람을 조직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20년 가까이 해왔는데, 그것이 교육 사업이기도 했던 모양이다. ‘철학교실’은 이후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시험하는 과정이 되었고, 초동주체들에게는 훈련의 장이 되었다.

그 결과, 1997년 분당에서 본격적인 모임이 시작되었다. 10여 년 가까이 사회운동을 같이 했던 동료들도 불러 모았다. 성남 조직책을 맡았던 이광호, 이재철, 백희봉, 그리고 원주의 조직책이었고, 협동조합운동의 전문가인 김용우 등. 그 분들과 함께 국내외 대안학교 사례, 교육사상, 교육이론, 공동체운동, 생태사상 등을 열심히 공부하였다.

간디학교, 풀무학교, 푸른꿈고등학교, 성지학교, 한빛 고등학교 등을 자주 방문하였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 무엇을 새로 시작한다고 해도 결국 앞서 고생한 분들의 피와 땀 위에 조금 보태는 일이다. 특히 양희규 선생님, 김창수 선생님, 홍순명 선생님, 정승관 선생님, 박종문 선생님의 조언과 도움을 많이 받았다.

2000년 1월 ‘내일을 여는 학교 준비모임’을 결성하여 대표를 맡았다. 그리고 학교 부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당에서 30분 이내에 있는 1만 평에서 2만 평 사이의 부지를 100여 개 정도 둘러보았다. 처음에는 학교와 마을을 함께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역량이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서 학교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 마을을 세우는 단계적 접근을하기로 결정했다. 말하자면 학교를 거점으로 도시에 공동체를 확산시키는 구상이다.

그러다가 2001년 12월 분당 동원동에 학교 부지를 계약하고, 70여 명의 설립자와 함께

‘이우교육공동체’를 결성하여 공동대표를 맡았다. 학교 설립을 준비하던 이 무렵엔 고문을 맡으신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님과 강지원 변호사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학교시설 결정 과정, 경기도 성남시와의 인접도로 협의 과정, 경기도 교육청과의 학교설립 인가 과정 등 관료제의 두터운 벽을 뚫는 과정은 정말로 험난했다. 그 과정에서 두 분의 역할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강 변호사님이 늘 농담처럼 “너희는 경로사상도 없냐? 노인네들한테 뒤에서 오다(order)나 내리고!”라고 하시던 말씀은 사실 농담이 아니었다. 그 바쁜 분들이 만사 제쳐두고 밤이고 낮이고 뛰셨다. 그러지 않았으면 이우학교는 탄생하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운동단체나 NGO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 과정에서 조직이 굴러가려면 얼굴마담이 중요하다. 그런데 광내는 사람은 참 많지만 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장갑이라도 끼는 행사가 있으면 광내러 오는 사람은 참 많다. 결정하는 총회 같은 데는 굉장히 시끄럽다. 그러나 총회가 끝나고 사업계획으로 잡힌 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남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준을 잡으신 분이 이명현 선생님이다. 대안교육을 법제화하고 교육부 장관도 하시면서 YS 정부의 교육 개혁을 주도하셨던 분이 온갖 굳은 일을 다 맡으셨다. 이렇듯 어른들의 솔선수범으로 인해 이우학교는 일하는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대안학교는 설립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그 성격이 크게 좌우된다. 기존의 대안학교들은 대부분 종교 재단이나 개인이 설립했다. 그러나 우리는 뜻있는 지역 시민들이 공동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를 꿈꾸었다. 더 정확하게는 ‘뜻은 있지만 돈 없는 사람’들이 세울 수 있는 학교의 전형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협동조합 방식을 구상했다. 분당에서 ‘공동육아협동조합’을 해본 경험도 있었고, 향후 지역 사업에서 공동체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조직형태로 협동조합을 고려했기 때문에 자연스런 선택이었다. 그런데 협동조합과 학교법인은 설립자금 모금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협동조합의 경우 출자 방식이라면 학교법인의 경우는 사실상의 기부인 출연 방식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소유이나, 학교법인은 학교설립자의 사적인 소유가 배제된 공적인 소유가 된다. 결국 법적인 한계들이 제기되어 협동조합방식을 포기하였다. 대신 뜻을 같이하는 분들로 ‘교육공동체’를 결성하고, 이 ‘교육공동체’를 모태로 하

여 학교 법인을 구성하는 방식을 취했다.

성남시의 학교시설 결정이 늦어지면서 개교가 6개월 늦추어졌다. 재정, 인력, 설립자들의 사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의 구상을 보다 치밀하게 다듬을 시간을 번 셈이었다. 선생님들도 이 시기에 교과 준비에 집중할 시간을 가졌다.

이리하여 2003년 9월 이우학교가 세워졌고, 2005년도인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년이 찬 완성년도가 되었다. 설립 초기의 이런 저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리를 잡은 셈이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굴곡이 참 많았다. 쉽게 되는 일이 없었고, 늘 좌절과 시련을 겪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음을 준비하는 내용과 힘을 얻었던 것이라.